

“2개월 만에 분기 실적 달성”... 증권가, 목표가 상향

metro 관심종목

오리온

지난주 하루에만 7% 이상 급등
대외 리스크에도 호실적 달성
당치 커진 해외법인 실적 견인

오리온이 해외법인 실적 증대에 힘입어 불과 2개월만에 2분기 실적 기대치를 달성했다. 이에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해 눈높이를 높이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리온은 전 거래일 대비 4000원(3.98%) 오른 10만4500원에 장을 마쳤다. 오리온은 올 들어 1분기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3월 초에는 8만원 대까지 주가가 내려앉았다. 그러나 이후 반등세가 나타났으며, 지난 15일에

〈오리온 목표주가〉

증권사	목표주가
하이투자증권	16만원
유안타대신증권	15만원
케이프투자증권	14만5000원
키움증권	14만원
DS투자증권	13만원
신한금융투자	12만5000원

/각사 취합

는 하루에만 7% 이상 급등한 이후 지속적으로 10만원을 웃돌고 있다.

오리온이 지난 14일 공시한 실적에 따르면 5월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4개국(한국·중국·베트남·러시아)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202억원, 36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6.8%, 90.1% 증가한 수치다.

오리온은 중국의 국경 봉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실적 상승을 이뤄냈다.

이경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리온은 대외변수 악화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시현했다”며 “2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672억원)는 4~5월 영업이익으로 마무리됐으며, 6월은 지역별 상황이 기존과 유사함을 감안한다면 최근 수준의 월실적이 추가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에서의 실적 성장이 두드러졌다.

박은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법인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성장률이 한국 19%, 중국 19%, 베트남 49%, 러시아 103%를 기록했다”며 “매출 고성장에도 다른 레버리지 효과와 비용 통제에 따른 결

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경쟁사의 가격 인상 속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시장점유율(MS)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고전했던 중국에서도 구조적인 MS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스넥에서 주요 경쟁사와 달리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플레이어 익스텐션(기존 제품에 다양한 종류의 맛을 추가하는 것), 기존 제품의 10% 증량 등으로 MS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스넥 매출이 지난달 한 달 동안 42%, 올 누적 합계로는 12% 증가했다.

베트남, 러시아 법인도 실적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박은정 연구원은 “베트남 시장 수요 확대에 따른 대응 강화, 신제품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라며 “러시아는 지정학적 우려 상황에도 시장이 견고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

내 6월 신공장 완공 및 시제품 생산을 앞두고 영업력이 확대 중”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업계에서도 오리온의 호실적 기대감 속에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경신 연구원은 “단기 대외변수와 관련한 우려가 최근 주가에 반영된 바 있으나, 영업실적을 통해 기우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비용부담이 높은 시기지만 오리온은 각 지역에서의 시장 상황에 맞는 전략을 기반으로 영업실적 개선이 모두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하이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기존 전망치보다 5000원 높은 16만원을 제시했다.

유안타증권도 이전에 제시해온 13만원에서 2만원을 높인 15만원으로 제시하면서 기대치를 높였다. 이 외에도 대신증권 15만원, 케이프투자증권 14만5000원, 키움증권 14만원, DS투자증권 13만원, 신한금융투자 12만5000원 등의 순이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TDF 힘 주는 자산운용사... 라인업 확대

사회 초년생 타깃 상품 잇따라 TDF·ETF 장점 더한 상품도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산운용사들의 TDF(타깃데이트펀드) 시장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타깃 고객에 맞춰 상품을 다양화하고, TDF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도 예고했다.

TDF는 투자자가 정한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운용사가 자산 비중을 조정해 알아서 투자하는 상품을 말한다. 증시 대비 낮은 변동성을 보여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내는 연금 상품으로 적합하다.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변동성을 낮게 관리하는 구조로 설계돼 미국, 호주, 영국 등 연금 선진국에서는 대표적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채택되고 있다.

19일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TDF 설정액 규모는 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 말(7조2550억원) 대비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됐다. 한화자산운용은 향후 5년 내 국내 TDF 시장이 대략 3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이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TDF 시장이 연평균 25%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한 점을 감안했을 때 한국 TDF 시장도 고성장 가능성이 예상된다. 설명이다.

자산운용사들의 TDF 상품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사회 초년생을 타깃으로 한 2055년, 2060년 TDF 상품과 기존 TDF에 다양한 테마의 투자 종목을 더한 상품도 나왔다.

상품명 뒤에 붙은 2055, 2060은 목표 시점인 은퇴 시점을 의미한다. 60세 즈음 은퇴를 계획한다면 1995년 전후 출생 세대는 2055를, 2000년 전후 출생 세대는 2060이 붙은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신한자산운용은 기존 TDF를 리모델링한 신한장기성장TDF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였다. 지수 투자를 중심으로 자산배분에 집중하는 기존 TDF에 인공

지능·메타버스·바이오 등 성장성이 큰 산업에 투자해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일반적으로 TDF가 은퇴시점까지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과 달리 장기 성장TDF는 목표시점 후에도 지속적 자산분배를 이어 나가는 특징이 있다.

비교적 보수가 낮고, 거래가 편한 TDF ETF도 오는 30일 국내 최초로 출시된다. 현재 삼성·한화·키움자산운용이 동시 출시를 앞두고 있다.

TDF ETF는 기존 TDF와 액티브 ETF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동시에 펀드매니저의 운용에 따라 추가 수익이 가능한 구조다. 펀딩 종목도 투자자에게 공개된다.

변재일 한화자산운용 WM솔루션운용팀장은 “TDF는 은퇴 자산을 축적하고 관리하는 데 특화된 펀드이며, 적립식 복리 효과와 리스크 관리까지 가능하다”며 “TDF ETF의 경우 비용 절감과 환급성이 뛰어나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투시도.

/롯데건설

롯데건설·현대건설 이문4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총 3720세대, 공사비 9528억 규모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의 컨소시엄(스카이 사업단)이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일원 지하 5층~지상 40층, 연면적 595,638㎡, 아파트20개동, 총3720세대 규모다. 총공사비는 9528억원이다. 이문4재정비촉진구역은 인근에 외대

앞역과 신이문역을 끼고 있는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한국외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대 등 대학교들이 다수 인접해 있다.

단지 주변에는 중랑천변이 위치하고 있다. 향후 지하화 예정인 동부간선도로와도 접근성이 좋다.

스카이 사업단 관계자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이문4구역을 독보적인 단지로 만들기 위해 최고의 상품 설계를 적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급락장에 개미 눈물... 반대매매 최고치

하루 315억5500만원 팔아치워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금리인상) 여파로 국내 증시가 2400선으로 무너지자 빚내서 투자한 개미들의 손실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 들어 반대매매 규모는 지난 15일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을 약정한 만기 기간에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규모는 315억5500만원으로, 올 1월 11일 반대매매 금액 313억원 이후 최

대 규모다. 15일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13.1%로 이달 초 반대매매 비중(6.9%) 대비 증가했다. 또한 지난 16일 반대매매 금액은 303억원가량으로 전 거래일 대비 12억원 줄어었지만 이를 연속으로 300억원대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가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 수급난 등 여러 가지 악재로 약세를 보이자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이달 들어 위탁매매 미수금 역시 증가하고 있다. 미수거래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사흘 후 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을 말한다. 지난 2일 1845억원이었던 위탁매매 미수금은 15일 3032억원으로, 2일 대비 1187억원 증가했다. 국내 증시가 부

진한 가운데도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는 개미들의 투자가 늘어나 반대매매와 미수거래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용 자 단고가 줄지 않는 것도 문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16일 기준 20조6862억원이다. 작년 6월(23조원) 대비 3조원가량 줄었으나 2020년 중반 10조원대에 비하면 여전히 2배가량 많은 금액이다.

반대매매가 증가하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 증시 부진으로 반대매매 매물이 쏟아지면 주가 하락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반대매매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더 커질 전망이다. /권관희 기자 wkh@

대우건설, 리모델링·재개발 동시 수주

안양 평촌초원한양 리모델링
원주 원동 다박골 주택 재개발

대우건설이 안양 ‘평촌초원한양아파트 리모델링사업’과 원주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동시에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

‘평촌초원한양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23층 규모의 아파트 870세대를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아파트 1000세대로 수평·별동 증축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3200억원이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을 ‘푸르지오 르디아망’으로 제안하고 평촌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축아파트를 리모델링했을 때 발생하는 평면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아파트의 상품성을 높이고자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평면을 개발했다.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9층, 총 18개 동의 아파트 152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중흥토건(대표 이경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총 공사비는 3246억원이다. 대우건설의 지분은 60%(1948억원)이다. 오는 2027년 1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kdh@